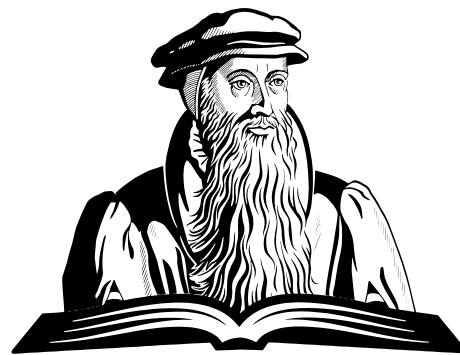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8: 왕국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8

왕국

강의 주제:

왕국이 분열된 후,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14,16).

강의 스크립트 18

어린이들은 강력한 왕이나 아름다운 성이나 광활한 왕국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들과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장엄함을 느낍니다. 또한 위대한 왕국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뒤얽힌 길을 추적하는 일은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국가들은 역사의 주된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의 중심에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변을 돌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목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윗과 여로보암은 이 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분열은 치유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대면하시는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왕국 시기에서 비롯되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어떻게 신약성경으로 전달됩니까? 이 시기는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오게 될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역사의 남은 시기에 대하여 이 시기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우리가 구속역사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보조수단이 있습니까? 이 강의의 범위는 구속역사 가운데 솔로몬 이후의 왕국의 분열에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시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이 역사 (history)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학의 요점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연구하고 그 신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주게 될 몇 가지 제안들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약속의 땅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두 왕국으로 나뉜 후 두 개의 병행하는 왕

조가 생겼습니다. 만약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한 연대표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각각 어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나라에 예언했던 시기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의 연대표에 추가하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과 같은 역사서 안에 있는 내러티브를 읽는다면 반드시 언제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연대표를 참고하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이 강의과정을 통해서 구속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 곧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왕국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연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혹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신학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대단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에 있는 역사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연구는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신학과 결합되어서 특히 선지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와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유대인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인식해야만 하는 이 다섯 권의 자료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영향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리적에 어느정도 익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지도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지도는 우리가 두 왕국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포함된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동안 이 제안을 따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 역사적 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며 또 그러기에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16:7에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왕상14:8)고 말씀하십니다. “나(하나님) 보기에” 라는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경건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른 왕도 일어나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적으로 다윗과 여로보암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18:3에 나오는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불경건한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열왕기하13:2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모든 불경건한 왕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다윗에 대한 언급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경건한 왕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이름은 자주 언급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왕들과 불경건한 왕들이 구별되는 기준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불행하고 끔찍한 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분열은, 남쪽의 두 지파와 북쪽의 열 지파의 분열이었고, 이스라엘의 신정정치에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쪽 왕국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쪽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열왕기상11장에서 직접 행했던 배교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12장에서 보듯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열에 썩기를 박아 더 깊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쪽의 열 지파는 반역하여 따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12:16에는 다음과 같은 불길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인 즉, 그들은 하나님과 그 분과의 언약에서 자신들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에 필연적으로 담겨있는 의미에 주목하세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언약을 철회하고 던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언약의 규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같은 장인 열왕기상12장의 후반에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급격한 영적 타락의 시작이었고 결국에는 앗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여호와와 진실한 종이 없었습니다. 예후가 그나마 가장 거기에 가까웠지만 그도 역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열왕기하7장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고집한 결과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말은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남쪽의 유대인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혼혈 이방인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혼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4:9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 유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했던 영적인 배신의 길을 걸었고 동일한 결과를 맞보아야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앞으로 유다의 포로와 회복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유다의 여덟 왕은 어느 정도 진실한 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열한 왕은 전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졌으며 특히 므낫세의 통치시기에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21:2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끔찍한 우상숭배를 하였고 언약의 씨인 자녀들을 불에 태워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인생의 마지막 이 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에게 미친 악한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의 포로기간 동안 예언을 했던 에스겔의 예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37:16,17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이 사라지는 것은 사도행전1:8에 나오는 대로 오직 새 언약 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2:14이하에서 두 지파 사이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치유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으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인도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세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중보자 또 하나님과의 결합을 이루는 은혜언약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를 의미하는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후의 역사는 대체로 이 세가지를 모두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대면하시는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불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지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들의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계시를 탐구하는데 시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있는 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하나님 자신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입니다. 우상이란, 어떤 신일 수도 있고 참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형태의 예배의 순결한 모습에서 떠나 만든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처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함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12장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북이스라엘에 따로 제사장과 산당들과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도시들과 거룩한 성일을 제정하고는 따로 독립된 형태의 예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의 중심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12:28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32장이 기록하는 사건으로서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의 재현입니다.

자, 다시 율법으로 가 봅시다. 율법의 제 2계명은 모든 형태의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율법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4:15,16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만든 모든 형상을 금하셨습니다.

더 이른 모세시대의 말씀인 출애굽기32:4과 여로보암시대의 열왕기상12:28 모두에서 금송아지는 여호와와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형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 대한 모든 형상도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숭배의 죄는 남은 왕들에게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42:8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우상숭배가 가져온 한 가지 중요한 결과를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것을 닮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요점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115:4-7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등등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이 8절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을 닮아가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경우 우리가 섬기고 닮아가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우상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파괴했고 그 결과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왕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여러분이 읽은 것과 신명기28장과 레위기2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비교해 보시면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각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넷째로, 이 사실이 어떻게 신약성경으로 이어져서 신약적 발전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영구한 우상의 공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교훈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출애굽기32장의 사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10:6,7에도 나오는 것을 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

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경고는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울립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후서6:16,17을 기록하면서 언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요한은 자신의 첫번째 서신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일5:21). 그러므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과 자신의 율법의 거룩한 기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물론 이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초점이 되십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명한대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3:18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8:29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어떤 형상 곧 하나님이나 다른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형상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된 축복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약의 분열왕국 시기에 나타나는 한 왕과 그 다음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왕들은 매번 약속된 위대한 왕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 위대한 다른 왕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를 잇는 궁극적인 상속자로 신약성경에 그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는 그 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이므로 그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하신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최초로 실패했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실패했던 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서7:13,14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 사건 전에 나오는 다니엘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묘사하십니다. 다니엘2:44에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2장과 7장에 나오는 이런 본문들은 마태복음2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구약의 역사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왕국이라는 주제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이시기에 그분의 왕국은 모든 나라보다 탁월합니다. 그 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11:15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또한 요한계시록21:24장에는 열방 가운데 복음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과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왕 곧 우리가 구약을 읽는 내내 그렇게 기다리는 약속된 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과 같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처음 했던 기도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외치는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8:60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시편67편은 여전히 우리의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시기를 구하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았듯이 왕국이 분열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 역사와 신학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예언적인 메시지 곧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